

한국판 문제성 음란물 사용 (Korean Problematic Pornography Use)척도의 타당화*

우 성 범[†]

한양사이버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한국판 문제성 음란물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포르노의 사용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판 문제성 음란물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Kor와 그 동료들(2014)이 제작한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PPUS)를 번안하고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 참가자 241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과도한 사용과 통제의 어려움', '적응과 기능손상', '부정적 정서 회피를 위한 사용' 12문항을 확정하였다. 이후 구성 타당도와 수렴 및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연구 참가자 299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3요인 구조가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분석을 위해 과잉 성 행동, 자아존중감, 성적 대상화 가해 척도, 정신적 웰빙과 한국판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성 규범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차원적 남성 규범 순응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문제성 음란물 사용, 성 행동, 남성성, 척도 타당화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 번호)(NRF-2020S1A5B5A16082547).

† 교신저자 : 우성범,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Tel: 02-2290-0366, E-mail: 1230001@hyc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터넷의 경제성과 접근성, 익명성으로 인해 포르노를 보는 것이 더 일반화되고 간편해지고 있다(Alexandraki et al., 2018). Cooper와 Klein(2018)은 인터넷 포르노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익명이며,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인기가 있으며 이를 Triple-A 엔진(액세스, 경제성 및 익명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런 변화는 포르노 소비의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켜(Kohut et al., 2020) 지난 몇십 년간 포르노를 소비하는 사용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Lewczuk et al., 2019). 하지만 이러한 포르노 사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시청에 대한 잠재된 위험성과 편익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자들은 포르노그래피가 성욕을 만족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Simon & Daneback, 2013), 성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보완해 주며(Barker, 2014), 안전하게 성을 탐구할 수 있고, 오프라인 성관계에 대한 다양성을 더 할 수 있고(Daneback et al., 2009),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Hald & Malamuth, 2008).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덕분에 인터넷 포르노는 페티쉬, SM, 수간, 근친상간 환상과 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다양한 성적환상의 충족에도 사용된다(Cooper, 1998).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의 성욕을 탐색할 수 있지만, 과도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때로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의 분노를 사며 주모자와 관련자, 회원들의 신상 공개와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이 쇄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주모자로 체포된 일련의 피의자들이 자신들이 음란물 중독이라고 주장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김소정, 2020).

문제성 음란물 사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포르노 산업 또한 성장하면서 포르노에 대한 많은 개념적인 변화가 있었고 학자마다 포르노에 대한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했다(Ayres & Haddock, 2009; Daneback et al., 2009; Ford et al., 2012; Kontula & Haavio-Mannila, 2009). 하지만 대부분 학자가 동의하는 정의는 성적 흥분을 위해 나체 혹은 반나체의 몸을 성적으로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자료(Traeen et al., 2006)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음란물은 사용자를 성적으로 자극하도록 고안된 잡지, 책, 인터넷 사이트, 전화나 비디오 등의 광범위한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 본 연구에서도 Kor와 동료들(2014)의 제안대로 성적인 사고, 느낌,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이미지, 영상 또는 묘사로 음란물을 정의하였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과거로부터 성적으로 노골적인 미디어 콘텐츠가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Weaver et al., 2011). Wilcox(1987)는 음란물의 사용이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어 결국 사회에 해를 끼치는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Perrin과 그의 동료들(2008)은 포르노그래피를 ‘공공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규정한 바 있다. 음란물 사용에 대한 유병률 추정치는 20~65%로 다양하지만(Albright, 2008; Carroll et al., 2008; Yang, 2016) 평균적으로 24.7%(남성:32.9%, 여성:17.3%)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학 연구들은 모두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내에는 이에 대한 유병률 추정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Hald와 그의 동료들(2014)은 음란물 사용이 개인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면이 있지만 지나치면 심리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란물을 자주 사용할수록 여러 파트너와 보호받지 않은 성관계나 혼외 성관계를 하거나 매춘이 증가하고, 비 배타적인 성관계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병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id et al., 2012).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주제의 음란물을 많이 시청하는 개인들은 성폭력과 관련될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강간을 가벼운 범죄로 여기고(McKee, 2005),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고 성적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한다는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Fisher & Barak, 2001). 이외에도 빈번한 음란물 시청은 삶에 대한 불만(Peter & Valkenburg, 2011), 외로움(Yoder et al., 2005), 직무 관련 문제(Hertlein & Piercy, 2008; Wright & Randall, 2012)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음란물 사용이 결혼 관계에서의 갈등을 증가시키고 부부간의 애착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Reid et al., 2011).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성적,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와 같은 외상 경험의 병력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고(Lever, 2007) 결혼 가정에서 주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Wood, 2011). 이들은 음란물 비사용자보다 자존감이 낮고(Lever, 2007) 우울감이 높았으며(Weaver et al., 2011), 우울증 또는 불안 장애에서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정서 경험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ack et al., 1997; Carnes & Adams, 2002; Kafka, 2010; Kafka &

Prentky, 1998). 하지만 이러한 음란물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문제성 음란물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개념과 정의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논의와 수정을 거쳐 왔다. 문제성 음란물 사용을 정의하기 위해 학자들은 음란물 사용 시간, 관련된 스트레스, 개인이 보고하는 장애의 정도(Cooper, 1998; Wetterneck et al., 2012)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을 정신장애로 공식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을 보이는 개인들은 현재 ‘특정되지 않는 성 장애’로 진단받게 된다. DSM-5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된 장애 중 하나는 과도한 성적 행동 장애였는데(Kafka, 2010) 해당 장애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강박성 장애 유형 중 ‘성적 강박’은 Rofes (1995)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는 이후 강박장애의 한 형태로 분류되었다(Coleman, 1990). 성적 강박은 불안과 기타 불쾌한 강박 사고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인 상상이나 음란물에 몰두하는 행동을 설명하였지만, 문제성 음란물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거나 감각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Kafka, 2010). Carnes(1994)는 문제성 음란물 사용을 중독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후 성 중독이라는 용어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이 관점은 우울한 기분을 위로하는 방법으로 성적 행동을 반복하고 남용하게 되며, 결국 중독처럼 내성이 생기며 통제감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한다(Carnes, 1994). 중독 모형의 관점은 Goodman(2008)에 의해 확장되었으며 음란물 사용이 다른 중독

과정과 공통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문제성 음란물 사용을 중독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Griffiths, 2000; Schneider, 1994). 이들은 성적 행동은 중의 생존과 관련한 행동이며, 행동적 중독 조건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내성과 회피의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최근의 관점은 문제성 음란물 사용을 설명하기에 충동 조절 장애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되기도 하였다(Kafka, 2010).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신에게 해로운 충동이나 유혹을 억제하거나 저항하기에 실패하는 것으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을 개념화한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과 정의의 불일치와 혼란에도 불구하고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개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성 음란물 사용은 충동성, 강박성, 중독성의 다차원적 특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행동적 문제를 수반한다(Griffiths, 2000; Mick & Hollander, 2006; Putnam, 2000). 문제성 음란물 사용은 종종 강력한 충동적 욕구로 촉발되며, 강박적 행동 패턴으로 발전한다(Davis et al., 2002; Shapira et al., 2003). 사용자들은 포르노 광고나 스팸 이메일과 같은 예기치 않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이러한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강박적 행동은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과 같은 생리적 각성으로 유지되며, 이는 일시적인 기분 상승 및 스트레스 완화를 제공한다. 또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은 중독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사용자들은 음란물을 통해 외로움, 불안, 우울증 또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기분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경험적 회피는 강박적 행동을 유지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Hayes et al., 1996; Twohig & Crosby, 2010). 문제성

음란물 사용은 물질 남용과 유사한 중독적 행동의 심리적 및 생리적 강화 메커니즘을 공유한다(Park et al., 2016). 이러한 중독성으로 사용자는 성적 만족과 같은 긍정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유지에는 정적, 부적 강화가 모두 역할을 한다. 음란물 시청은 성적 자극을 통해 긍정적인 심리적 및 생리적 강화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내부 상태나 스트레스로부터의 일시적 탈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Wetterneck et al., 2012).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Kor와 그 동료들(2014)은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특성을 파악하고 물질 및 비 물질 중독의 4가지 공통 특성을 기반으로 PPUS(Problematic Pornography Use Scale)를 개발하였다. PPUS척도는 ‘스트레스와 기능적 문제’, ‘과도한 사용’, ‘통제의 어려움’, ‘부정적 정서의 회피를 위한 사용’의 4가지 요인,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Kor 등(2014)의 연구에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은 다른 중독 척도인 인터넷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구성개념으로 나타났다. 문제성 음란물 사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들에서 음란물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PPUS는 사용하는 이스라엘(Kor et al., 2014), 중국(Chen et al., 2021), 스페인(Paredes et al., 2021)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가 시행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가지 하위요인 간의 적절한 상관성이 확인되었다(Chen et al., 2021; Kor et al., 2014). 또한, PPUS와 음란물 소비 동기(예: 감정적 회피 및 성적 호기심)와 유의미 정적 상

관관계가 나타나 수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우울증, 불안, 낮은 자존감, 친밀한 관계에서의 정서적 불안, 외상 경험, 주관적 고통과 기능손상(Kor et al., 2014) 및 음란물에 대한 갈망(Chen et al., 2021)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추가로 PPUS 총점은 젊고, 남성적이며, 더 많은 성욕을 가진 사람, 인터넷 중독 및 도박 중독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게 나타났다(Kor et al., 2014).

문제성 음란물 사용은 남성성, 정서 억제 등과 같은 남성 심리학의 주요한 주제들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인터넷 포르노에 등장하는 내용은 전통적인 남성적 성 역할의 주요한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Borgogna et al., 2019). 예를 들어 Mahalik(2000)의 남성 규범 중 ‘플레이보이’ 요인은 남성이 여러 여성과 자주 성 관계를 가지는 것을 뜻하며 이를 반영하여 음란물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 관계를 가지는 남성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음란물에서 묘사하는 남성의 쾌락을 위해 대상화되고 종속된 여성에 대한 개념은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여성에 대한 권력’과 같은 규범과 일치한다. 남성들이 소비하는 포르노에서는 여성에 대한 통제적이고 공격적인 성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남성은 가해자로 묘사된다(Fritz & Paul, 2017). 남성 규범 중 ‘정서적 억제’ 요인은 ‘부정적인 정서를 억압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성 음란물 사용자는 종종 음란물을 정신건강 문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Kor et al., 2014) 또는 대처 방법으로 사용한다(Laier et al., 2015).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남성 규범이 높은 개인일수록 음란물 사용에 몰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적 및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야만 하는 남성 규범을 국내 연

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의 남성 규범은 서구의 전통적 남성 규범과는 달리 전통적 가부장제와 성 평등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규범을 지지하고 방어하는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홍신영, 2018). 이러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우성범(2019)은 개념도 연구를 통해 한국 남성들이 인식하는 남성성으로 ‘부양자’, ‘정서 억제’, ‘직무능력과 조직사회 적응’, ‘남성 리더십’, ‘힘과 통제’, ‘기대되는 남성적 능력’을 제시하였다. 남성 규범의 다차원적 요인 중 ‘힘과 통제’ 요인은 Fritz와 Paul(2017)이 제기한 여성에 대한 힘과 통제, 성적 대상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정서 억제’는 Cardoso와 그의 동료들(2022)의 연구에서 음란물 사용의 주요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문제성 음란물 사용과 더불어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개념은 과잉 성 행동(Hypersexuality)이다. 과잉 성 행동은 ‘성 중독(Carnes, 1990)’, ‘강박적 성 행동(Coleman, 1990)’, ‘성애 관련 장애’와 같은 용어로 불려왔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과 성애 장애(Kafka, 2010)’ 및 ‘통제 불능의 성적 행동(Braun-Harvey & Vigorito, 2015)’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됐다. 이러한 개념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징은 강박적인, 통제하기 어려운 성적 행동으로 인한 고통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과잉 성 행동은 문제성 음란물과 유사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과잉 성 행동을 보이는 남성들은 특히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Miner et al., 2016). 이들은 수치심, 죄책감,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취약하고 이러한 정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Rizor et al.,

2017). Bancroft와 Vukadinovic(2004)에 따르면 부정 정서조절의 실패가 과잉 성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는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은 Kor와 그 동료들(2014)이 제기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주요한 하위요인인 ‘부정 정서의 회피를 위한 사용(Use for escape/avoid negative emotions)’과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Parsons와 그의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도 참가자들은 부정적인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성적 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과잉 성 행동과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과잉 성 행동과 문제성 음란물 사용이 같은 개념인지 변별되는 구성개념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이 앞서 언급된 남성 규범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음란물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관련된 사회 현상(김소정, 2020)과 더불어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음란물 사용 정도를 수량화하여 성폭력 가해 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이진석 외, 2018), 부부폭력의 노출이 청소년의 음란물 이용에 관한 연구(김재엽 외, 2017)가 있으나 음란물 이용 정도에 대한 빈도를 측정치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구성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최근 박경우와 그의 동료들(2022)의 연구에서 음란물 사용 동기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음란물 사용에 대한 동기적 측면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구성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학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존재하

지 않아 음란물 중독과 관련한 다양한 예측변인 및 건강 문제와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PPUS척도를 번안하여 한국판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를 한국 사회에 맞게 타당화하고, 제작된 척도가 남성 규범의 요인들 및 과잉 성 행동, 기타 관련 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남성들의 문제성 음란물 사용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척도를 제시하여 향후 문제성 음란물 사용에 대한 이해와 개입, 치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19세 이상의 일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적인 온라인 패널을 가진 리서치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에서 보유한 남성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배포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에 관한 설명문과 연구 참가 동의서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가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소요 시간과 예상되는 위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참가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추가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며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미리 밝혀 스스로 확인 및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는 크게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로 모집된 표본 241명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표 1. 연구 참가자들의 빈도표(N=540)

		1차 표집		2차 표집	
		n	%	n	%
직업	학생	13	5.4	17	5.7
	직장인	164	68.0	200	66.9
	자영업	32	13.3	37	12.4
	무직	23	9.5	31	10.4
	기타	9	3.7	14	4.7
학력	고졸	45	18.7	64	21.4
	전문대졸	33	13.7	45	15.1
	대졸	136	56.4	161	53.8
	대학원 이상	27	11.2	29	9.7
결혼여부	미혼	74	30.7	81	27.1
	기혼	158	65.6	201	67.2
	이혼	9	3.7	13	4.3
	기타	0	0.0	4	1.3
포르노 시청 빈도	전혀 보지 않음	55	22.8	53	17.7
	한 달에 1~2번 이하	110	45.6	154	51.5
	1주에 1~2번	56	23.2	68	22.7
	1주에 4~5번	16	6.6	17	5.7
	1주에 6~7번 이상	4	1.7	7	2.3
자위 행위 빈도	전혀 하지 않음	57	23.7	69	23.1
	한 달에 1~2번 이하	112	46.5	142	47.5
	1주에 1~2번	49	20.3	70	23.4
	1주에 4~5번	16	6.6	11	3.7
	1주에 6~7번 이상	7	2.9	7	2.3
성관계 빈도	전혀 하지 않음	72	29.9	89	29.8
	한 달에 1~2번 이하	123	51.0	161	53.8
	1주에 1~2번	42	17.4	45	15.1
	1주에 4~5번	3	1.2	2	0.7
	1주에 6~7번 이상	1	0.4	2	0.7
전체		241	100.0	299	100.0

통하여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2차로 모집된 연구대상자 299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및 공인 타당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연구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48.07세 표준편차는 13.25로 나타났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인구학적 변인과 성 행동 관련 변인의 빈도표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도구

문제성 음란물 사용(PPUS) 척도

문제성 음란물 사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or와 동료들(2014)이 개발한 PPUS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PPUS척도는 ‘스트레스와 기능적 문제(예: 음란물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적 상황, 직장 또는 다른 중요한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과도한 사용(예: 음란물에 대한 생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통제의 어려움(예: 포르노를 보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느낀다)’, ‘부정적 정서의 회피를 위한 사용(예: 부정적인 감정이나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르노를 사용한다)’의 4가지 요인,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성 음란물 사용 중독 경향이 있다고 간주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순서대로 .92, .89, .9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는 .95로 나타났

한국 남성 규범(K-CMNI) 척도

남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성범(2017)이 개발한 한국 남성 규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 사회의 남성 규범을 탐색한 후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총 31문항으

로 제작되었다. 하위요인으로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책임지며 여성을 보호하는 ‘가족 부양자(5문항, 예: 나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요인, 과묵하고 세세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정서를 억제하는 ‘정서 억제(5문항, 예: 나는 내 감정을 속에만 담아두는 편이다)’ 요인, 경쟁력 있고 뛰어난 직무능력을 가지고 소속집단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직업 자립(5문항, 예: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요인,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남성 리더십(11문항, 예: 나는 추진력이 있다)’ 요인, 여성에 대한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타인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하는 ‘힘과 통제(5문항, 예: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견딜 수 없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순서대로 .78, .82, .77, .89, .72로 나타났다.

과잉 성 행동 척도

과잉 성 행동(hypersexuality)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 문항들을 Kor와 그의 동료들(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별적인 설문 문항으로 만들었다. 항목은 포르노 시청 빈도, 자위 행위 빈도, 성관계 빈도를 전혀 하지 않음(1)부터, 한 달에 한 번 이하(2), 1주에 1~2번(3), 1주에 4~5번(4), 1주에 6~7번 이상(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성관계 대상자 명수를 수집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

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10문항 중 5문항은 역채점하게 구성되었다. 전병제(197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정신적 웰빙(K-MHC-SF) 척도

준거 관련 변인으로 정신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Keyes(1998)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임영진과 그의 동료들(201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정신적 웰빙 척도(K-MHC-SF)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행복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개발한 척도를 ‘정서적 웰빙(3문항, 예: 행복감을 느꼈다)’, ‘사회적 웰빙(5문항, 예: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꼈다)’, ‘심리적 웰빙(6문항, 예: 내 삶이 방향감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의 3요인, 1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성적 대상화 가해 척도(ISOS-P)

Gervais와 그의 동료들(2014)이 성적 대상화를 가해자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Perpetration Version(ISOS-P) 척도를 우성범(2023)이 국내용으로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적 대상화 가해는 타인을 얼마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고안된 척도로서 성적 대상화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다. 문항 내용은 ‘누군가의 몸매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대신 몸의 특정 부위를 응시한

다’ 등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Kor와 그 동료들(2014)이 개발한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Problematic Pornography Use Scale; PPUS)를 번안하였다. 번안을 위하여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쳐 원척도와 의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선행과정을 통해 얻은 예비문항에 대해서 문제성 음란물 사용에 대해 적절한지 확인하는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심리학 관련 학계 전문가이자 대학교수인 남성 심리학자 2인을 대상으로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정을 거쳤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방법

IBM SPSS 21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측정모형의 요인계수와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Analysis of Movement Structure) 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단계에서 모수 추정을 위한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하면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지수와 이론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합치하는지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그리고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의 지수를 선택하여 적합도를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변안된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PPUS)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과잉 성 행동 관련 변인, 한국판 남성 규범 순응 척도, 대인관계 성적 대상화 척도와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번역된 12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는 .898,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chi^2=6549.01$, $p<.001$ 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추출방법은 최대 우도(ML)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오차를 허용하

는 공통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은 요인 간 상관을 허용하는 사각회전 방법인 Promax 방법을 사용하였다(Fabrigar et al., 1999). 요인 수 선정의 기준은 고유치, 스크리 도표, 적합도 지수,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지수는 Preacher와 그의 동료들(2013)의 제안에 따라 RMSEA의 90% 신뢰구간의 하한계 값이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나타난 요인 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3요인에서 RMSEA의 90% 신뢰구간의 하한계 값이 .075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3요인 구조를 선택하였고 각 요인에 따른 문항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포르노를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 ‘포르노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노력이 지금껏 실패해왔다’ 등의 문항 내용에 따라 ‘과도한 사용과 통제의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포르노를 보는 것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이나 직장 혹은 삶의 주요 영역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포르노를 보는 것으로 인해 중요한 인간관계, 직업, 교육 및 경력 개발 등의 기회를 잃거나 잃을 뻔한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적응과 기능손상’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의기소침할 때 포르노를 본다’,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르노를 사용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부정적 정서의 회피를 위한 사용’으로 명명

표 2. 요인 수 선정을 위한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및 RMSEA

	χ^2	df	RMSEA	(90% 신뢰구간)
1요인	1000.14	54	.180	.170~.190
2요인	495.616	43	.139	.129~.151
3요인	170.25	33	.088	.075~.101

표 3.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제성 음란물 사용 문항	요인계수		
	과도한 사용과 통제의 어려움 (a=.92)	적응과 기능 손상 (a=.89)	부정 정서 회피를 위한 사용 (a=.90)
1. 포르노를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	.967	-.134	-.085
2. 그만두고 싶어도 계속 포르노를 보게 된다	.880	-.026	-.010
3. 포르노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721	-.126	.133
4. 포르노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노력이 지금껏 실패해왔다	.710	.195	-.001
5. 포르노를 보는 것을 계획하거나 실제로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604	.228	.100
6. 포르노와 관련된 생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543	.214	.193
7. 포르노를 보는 것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이나 직장 혹은 삶의 주요 영역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119	.980	-.021
8. 포르노를 보는 것으로 인해 중요한 인간관계, 직업, 교육 및 경력 개발 등의 기회를 잃거나 잃을 뻔한 적이 있다	-.056	.974	-.010
9. 신체적으로 해를 입을 위험(예: 과도한 음란물 시청으로 인한 발기부전,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르노를 본다	.252	.550	.053
10. 의기소침할 때 포르노를 본다	.009	-.117	.999
11.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르노를 사용한다	.072	.064	.758
12. 불쾌하거나 힘든 감정(예: 우울, 슬픔, 불안, 지루함, 안절부절, 수치심 또는 초조함)을 느끼면서 포르노를 본다	-.015	.218	.688

하였다. 각 요인은 모두 높은 내적 합치도 지수(Cronbach's α) 신뢰도 지수를 보였으며 요인 계수 또한 .55 이상으로 나타나 3요인의 분류가 적절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다음으로 교차 타당도와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여 위하여 표본 2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TLI=.938, CFI=.955, RMSEA=

.098, SRMR=.050으로 나타나 적합하게 나타났고 모델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표준화된 요인계수가 .72~.92 사이로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의 문항들이 요인구조에 맞게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인 타당도

다음으로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잉 성 행동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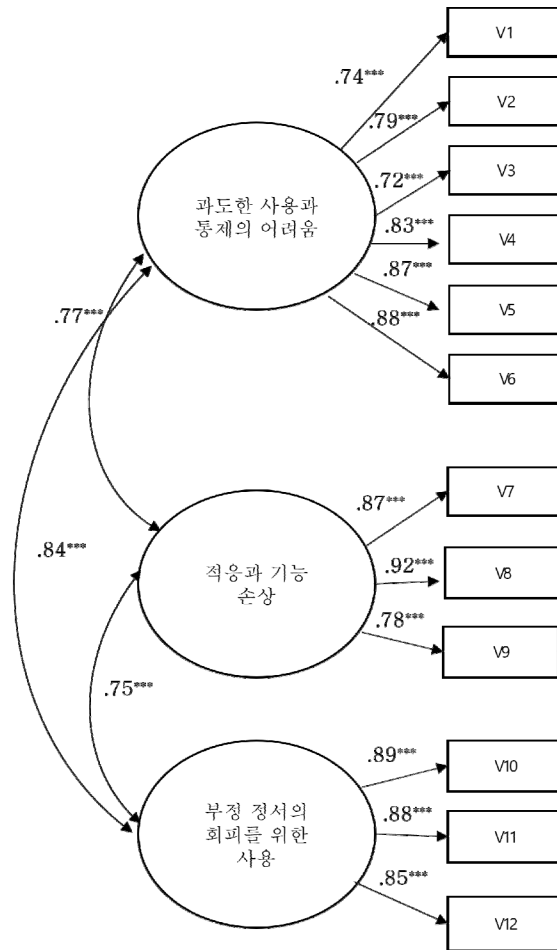


그림 1.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계수는 표준화계수)

변수인 포르노 시청 빈도, 자위 행위 빈도, 성관계 빈도, 성관계 대상자 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인관계 성적 대상화 자아 존중감, 정신적 웰빙 척도와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구성개념이 가진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제성 음란물 사용은 포르노 시청 빈도($r=.30, p<.01$)와 자위 행위 빈도($r=.30,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하위요인 중 과도한 사용 및 통제의 어려움 요인과의 정적 관계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성관계 빈도($r=.01, p>.05$), 성관계 대상자 수($r=.05, p>.05$)와의 상관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문제성 음란물 사용이 매체와 자위 행위와 관련이 있고 실제 대인 간의 성 관련 행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와 대인관계 성적 대상화 가해 척도($r=.61, p<.01$)간의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아존중감($r=-.44, p<.01$)은 적절한 크기의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신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로계수와 적합도 지수

		B	β	S.E	t
과도한 사용과 통제의 어려움	→ 포르노를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	1.00	.74		
	→ 그만두고 싶어도 계속 포르노를 보게 된다	1.01	.79	.05	21.40***
	→ 포르노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87	.72	.05	16.63***
	→ 포르노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실패해왔다	1.03	.83	.05	19.54***
	→ 포르노와 관련된 생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1.02	.87	.05	20.25***
	→ 포르노를 보는 것을 계획하거나 실제로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1.05	.88	.05	20.59***
적응과 기능 손상	포르노를 보는 것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이나 직장 → 혹은 삶의 주요 영역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1.00	.87		
	포르노를 보는 것으로 인해 중요한 인간관계, 직업, → 교육 및 경력 개발 등의 기회를 잃거나 잃을 뻔한 적이 있다	1.02	.92	.04	28.90***
	신체적으로 해를 입을 위험(예: 과도한 음란물 시청 → 으로 인한 발기부전,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오르가 즘에 도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	.98	.78	.04	22.35***
부정 정서의 회피를 위한 사용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르노 → 를 사용한다	1.00	.89		
	→ 의기소침할 때 포르노를 본다	1.01	.88	.04	27.77***
	불쾌하거나 힘든 감정(예: 우울, 슬픔, 불안, 지루함, → 안절부절, 수치심 또는 초조함)을 느끼면서 포르노를 본다	.90	.85	.03	26.45***
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297.147, df=48$ TLI=.938, CFI=.955, RMSEA=.098, SRMR=.050					

*** $p < .001$

적 웰빙과($r=.01, p>.05$)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판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PPUS)가 적절한 공인 타당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이 남성들의

사회적 문화적 규범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와 남성 규범 준응 척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제성 음란물 사용은 남성 규범 중 힘과 통제요인($r=.38, p<.01$), 정서 억제($r=.32,$

표 5.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문제성 음란물 사용	과도한 사용과 통제의 어려움	적응과 기능 손상	부정 정서 회피를 위한 사용
포르노 시청 빈도	.30**	.41**	.08	.22**
자위 행위 빈도	.29**	.37**	.11*	.22**
성관계 빈도	.01	.02	.01	.01
성관계 대상자 수	.05	.04	.02	.08
대인관계 성적 대상화 가해	.61**	.55**	.57**	.53**
자아존중감	-.44**	-.42**	-.39**	-.35**
정신적 웰빙	.01	-.04	.06	.03

** $p < .01$

표 6.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와 남성 규범 순응 척도 간의 상관

	문제성 음란물 사용	과도한 사용과 통제의 어려움	적응과 기능손상	부정 정서 회피를 위한 사용
남성 규범-남성적리더쉽	-.07	-.12**	.01	-.02
남성 규범-힘과통제	.38**	.30**	.41**	.34**
남성 규범-직업자립	-.02	.01	-.06	-.03
남성 규범-가족부양자	-.17**	-.17**	-.14**	-.12**
남성 규범-정서억제	.32**	.31**	.26**	.27**

** $p < .01$

$p < .01$)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가족 부양자 요인($r = -.17, p < .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힘과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규범에 순응하는 남성일수록, 정서를 억제해야 남성답다고 여기는 남성일수록 문제성 음란물 사용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문제성 음란물 척도

를 번안 타당화 하기 위해 Kor와 그 동료들(2014)이 제작한 문제성 음란물 척도(PPUS)를 이중 언어 사용자를 통해 번역하고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본1을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과도한 사용과 통제의 어려움’, ‘적응과 기능손상’, ‘부정 정서 회피를 위한 사용’ 3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표본2를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이 적절한 구성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한국판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가 과잉 성 행동, 성적 대상화 가해와 적절

한 상관을 보였고, 남성 규범의 요인 중 힘과 통제, 정서 억제와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한국판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의 첫 번째 요인으로 나타난 ‘과도한 사용과 통제의 어려움’ 요인은 음란물 사용의 지나친 사용과 조절의 어려움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음란물의 강박적인 사용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원칙도와 더불어 음란물 사용을 측정하는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다(Grubbs et al., 2015; Kor et al., 2014; Noor et al., 2014).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과도한 사용 및 통제의 어려움’은 개인이 음란물 사용을 통제하는 데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담자나 상담자가 음란물 사용과 관련된 통제의 어려움 수준을 파악하여 치료적 개입에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 나타난 ‘적응과 기능손상’은 음란물 사용으로 인해 개인이 사회적, 직업적, 대인관계적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요인은 음란물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음란물 사용이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지 식별하고 개입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적응과 기능손상 요인은 일반적 음란물 사용과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구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어떤 개인은 음란물 사용이 적응과 기능손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어떤 개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후 일반적 음란물 사용과 역기능적 사용의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기제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 나타난 ‘부정 정서의 회피’ 요인은 개인이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거나 회피할 목적을 위해 포르노를 사용하는 경향을 측정한다. 해당 요인은 특히 음란물 사용과 관련한 정서-행동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개인이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사용을 선택하는 것은 음란물 사용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으며 중독증상의 이면에 부정적 경험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손승희, 2017).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음란물을 사용하는 것은 음란물 사용의 주요 동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Bancroft & Vukadinovic, 2004). 회피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사용할 경우는 일종의 도피 수단으로 작용하며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잠시 잊게 해 주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음란물 시청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음란물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비슷한 맥락으로, 허무녕과 김춘경(2021)의 국내 연구에서도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개인일수록 쾌락적인 시간관을 가지며, 결국 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공인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과도한 성적 행동과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상관은 낮은 상관 또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이 나타나 두 가지 구성개념들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이 드러났다. 이는 성 중독과 음란물의 중독적 사용은 개별적인 중독 기준을 가지는 개념으로 그 정의와 치료에 있어 구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Kor et al., 2014).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더

나은 평가 및 개입 전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 실제에서도 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내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이러한 구분은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남성 규범과 문제성 음란물 사용과의 관계를 탐색했을 때 한국 남성 규범 순응 척도에서 나타난 ‘힘과 통제’ 요인이 높은 개인은 문제성 음란물 사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힘과 통제’ 요인은 구체적으로 경제력과 학력, 결정권에 있어 여성이나 아내와 비교해 우위를 가지려는 측면이 있고 문제 상황을 힘과 권력으로 해석하며 약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의 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우성범, 2017). 해당 요인은 전통적인 서구의 남성 규범에 관한 연구의 통제(Carter et al., 2000)와 여성에 대한 권력 규범(Parent et al., 2011)과 유사한 요인이며 포르노 매체에서 묘사하는 남성의 역할이 여성에 대한 권력, 성적 대상화와 관련이 있다(Bridges et al., 2010; Fritz & Paul, 2017). 다시 말하면 힘과 통제의 규범을 내재화한 남성이 포르노 매체를 통해 성 역할에 대한 수치심이나 갈등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런 기제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 규범 중 정서 억제 요인 또한 문제성 음란물 사용과 관련성을 보였다. 정서 억제 요인은 감정과 거리를 두거나 감정을 느끼기는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 전반을 포함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에서도 정서 억제가 개인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존재한다(Gross, 1998; Gross & Levenson, 1993; Pennebaker & Beall, 1986). 본 연구 결과는 정서 억제의 규

범으로 인해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심리적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음란물 사용이 부정 정서를 처리하거나 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음란물 사용에 있어서 개인의 정서적 처리와 대처를 함께 고려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판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는 문제성 음란물의 사용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음란물 사용의 문제 여부를 판단하고 치료 결과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점수가 높은 개인이 여러 영역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보고하고 있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처럼 지나친 음란물 사용이 부정적인 정신 건강 변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은 독특한 행동적 증독증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 증독으로 개념화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에도 본 척도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앞으로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와 더불어 매체 중독 문제가 증가하고(이중환 등, 2016) 음란물에 더 쉽고 빈번하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것을 고려할 때 본 척도의 활용은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과잉 성 행동 변인과의 문제성 음란물 중독과 낮은 관련성을 볼 때 성 중독과 음란물 중독이 구분된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은 한국의 문화적 맥락과 관련한 시사점을 가진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음란물 사용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비교적 보수적인 성 문화는 음란물 사용에 대한 수용도가 낮음을 의미하며, 이는 서구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성 개방성과 대조된다(오지향, 2012). 서구 국가들에서 음란물 사용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용이 더 큰 사회적 낙인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박동훈, 2008). 이는 음란물의 접근성과 사용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규제가 덜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내에서 음란물을 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낙인과 연결되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사용 습관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경향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PPUS)의 요인구조와 공인 타당도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Kor et al., 2014), 중국(Chen et al., 2021) 스페인(Paredes et al., 2021)에서 타당화한 도구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음란물 사용을 국가적으로 비교한 Willis와 그의 동료들(2022)은 한국, 독일, 대만, 미국의 네 국가를 대상으로 동질성 연구를 한 결과 국가 간 음란물 사용과 그 영향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성 음란물 사용에 관한 국제 연구 및 정책 수립, 교육과 개입에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는 문제성 음란물 사용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구성 개념은 자기 보고식 검사로 측정되었다. 온라인 설문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익명으로 설문을 시행했지만 자기 보고식 검사에 의한 결과는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개인의 특질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 특히 음란물 사용의 척도 내용이 성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항에 수치심을 가진 개인이 응답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투사적인 방법이나 포르노 매체 이용 시간과 같은 객관적 측정 등을 음란물 사용에 연구를 시행하면 자기 보고식 검사 결과와 차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한국 사회의 지역과 연령대에서 표본을 수집했지만,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의 문제성 음란물 사용도 중요한 연구 주제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남성과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제성 음란물 사용 척도가 여성 집단에서도 측정 동일성을 보이는지, 평균 차이의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들의 발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발달적 단계에 따른 음란물 사용과 그 문제들은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과 장년, 미혼과 기혼 등 다양한 연령과 결혼 상태에서의 문제성 음란물 사용의 영향과 정도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그룹과 결혼 상태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남성들의 발달적 맥락을 더욱 상세히 탐구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남성의 음란물 사용과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더

욱 깊게 확장하고 정확한 개입 전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소정 (2020). 안승진 “음란물 중독이다”...전문가 “열등감 보상행위”. 이데일리. 2020년 6월 28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5366625806312&mediaCodeNo=257>.
- 김재엽, 몽크나룻, 최선아 (2017). 부부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음란물 이용에 미치는 영향: 우울/불안의 매개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3), 211-230.
- 박경우, 유현중, 장혜인, 이상규, 이은지 (2022). 한국어판 음란물 사용동기 척도(K-PUM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5), 763-788.
- 박동훈 (2008).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행태와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 (2017).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43-763.
- 오지향 (2012). *청소년의 책임감 고양을 위한 성윤리교육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성범 (2017). *한국 남성규범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우성범 (2019). 한국 남성의 남자다움은 무엇인가?: 남성성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3), 203-229.
- 우성범 (2023). *한국판 성적 대상화-가해 척도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Perpetration Version)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3(2), 574-585.
- 이중환, 임종민, 손한백, 곽호완, 장문선 (2016). 행동중독 준거기반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25-443.
- 이진석, 김재엽, 황선익 (2018).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음란물 접촉,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공격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 187-210.
-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 (MHC-SF) 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 논총*, 11, 107-124.
- 허무녕, 김춘경 (2021).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243-26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신영 (2018). *여성의 정치적 힘과 가부장적 권력의 해체*.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bright, J. M. (2008). Sex in America online: An exploration of sex, marital status, and sexual identity in Internet sex seeking and its impacts. *Journal of Sex Research*, 45(2), 175-186.
- Alexandraki, K., Stavropoulos, V., Burleigh, T. L., King, D. L., & Griffiths, M. D. (2018). Internet pornography viewing preference as a risk factor for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The moderating role of classroom personality

- factor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7(2), 423-43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Washington, DC.
- Ayres, M. M., & Haddock, S. A. (2009). Therapists' approaches in working with heterosexual couples struggling with male partners' online sexual behavior.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6(1), 55-78.
- Bancroft, J., & Vukadinovic, Z. (2004). Sexual addiction, sexual compulsivity, sexual impulsivity, or what? Toward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Sex Research*, 41(3), 225-234.
- Barker, M. (2014). Psychology and pornography: Some reflections. *Porn Studies*, 1(1-2), 120-126. doi:10.1080/23268743.2013.859468
- Black, D. W., Kehrberg, L. L., Flumerfelt, D. L., & Schlosser, S. S. (1997). Characteristics of 36 subjects reporting compulsive sexu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2), 243-249.
- Borgogna, N. C., McDermott, R. C., Browning, B. R., Beach, J. D., & Aita, S. L. (2019). How does traditional masculinity relate to men and women's problematic pornography viewing?. *Sex Roles*, 80, 693-706.
- Braun-Harvey, D., & Vigorito, M. A. (2015). *Treating out of control sexual behavior: Rethinking sex addiction*.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Bridges, A. J., Wosnitzer, R., Scharrer, E., Sun, C., & Liberman, R. (2010). Aggression and sexual behavior in best-selling pornography videos: A content analysis update. *Violence Against Women*, 16(10), 1065-1085.
- Cardoso, J., Ramos, C., Brito, J., & Almeida, T. C. (2022). Predictors of pornography us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and loneliness.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19(4), 620-628.
- Carnes, P. (1990). Sexual addiction. In A. Horton, B. L. Johnson, & L. M. Roundy (Eds.), *The incest perpetrator: A family member no one wants to treat* (pp. 126-143).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Carnes, P. (1994). *Contrary to love: Helping the sexual addict*. Hazelden Publishing.
- Carnes, P., & Adams, K. M. (Eds.) (2002). *Clinical management of sexual addiction*. New York: Brunner-Routledge.
- Carter, J. D., Joyce, P. R., Mulder, R. T., Luty, S. E., & McKenzie, J. (2000).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sentation of depressed outpatients: A comparison of descriptive variabl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1(1-2), 59-67.
- Carroll, J. S., Padilla-Walker, L. M., Nelson, L. J., Olson, C. D., McNamara Barry, C., & Madsen, S. D. (2008). Generation XXX: Pornography acceptance and use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3(1), 6-30.
- Chen, L., Jiang, X., Luo, X., Kraus, S. W., & Bóthe, B. (2021). The role of impaired control in screening problematic pornography use: Evidence from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ies in a large help-seeking male sampl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37/adb0000714>

- Coleman, E. (1990). Expanding the boundaries of sex research.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7, 473-480.
- Cooper, A. L. (1998). Sexuality and the Internet: Surfing into the new millennium. *CyberPsychology & Behavior*, 1(2), 187-193.
- Cooper, D. T., & Klein, J. L. (2018). College students' online pornography use: Contrasting general and specific structural variables with social learning variable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 551-569.
- Daneback, K., Træen, B., & Månsson, S. A. (2009). Use of pornography in a random sample of Norwegian heterosexual coupl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8, 746-753.
- Davis, R. A., Flett, G. L., & Besser, A. (2002). Validation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problematic Internet use: Implications for pre-employment screen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5(4), 331-345.
-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
- Fisher, W. A., & Barak, A. (2001). Internet pornography: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Internet sexuality. *Journal of Sex Research*, 38(4), 312-323.
- Ford, J. J., Durtschi, J. A., & Franklin, D. L. (2012). Structural therapy with a couple battling pornography addict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0(4), 336-348.
- Fritz, N., & Paul, B. (2017). From orgasms to spanking: A content analysis of the agentic and objectifying sexual scripts in feminist, for women, and mainstream pornography. *Sex Roles*, 77(9-10), 639-652.
- Gervais, S., Davidson, M., Styck, K., Canivez, G., & DiLillo, D. (2014).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Perpetration version. *PsycTESTS dataset*.
- Goodman, A. (2008). Neurobiology of addiction: An integrative review. *Biochemical Pharmacology*, 75(1), 266-322.
- Griffiths, M. (2000). Internet addiction-time to be taken seriously?. *Addiction research*, 8(5), 413-418.
- Gross, J.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6), 970.
- Gross, J. J. (1998). Antecedent-and response-focused emotion regulation: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224.
- Grubbs, J. B., Stauner, N., Exline, J. J., Pargament, K. I., & Lindberg, M. J. (2015). Perceived addiction to Internet pornography and psychological distress: Examining relationships concurrently and over tim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9(4), 1056-1067.
- Hald, G. M., & Malamuth, N. M. (2008). Self-perceived effects of pornography consump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7(4), 614-625.
- Hald, G. M., Seaman, C., & Linz, D. (2014). Sexuality and pornography. In D. Tolman, L.

- Diamond, J. Bauermeister, W. George, J. Pfaus, & M. Ward (Eds.), *APA handbook of sexuality and psychology* (Vol. 2, pp. 3-3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152.
- Hertlein, K. M., & Piercy, F. P. (2008). Therapists' assessment and treatment of internet infidelity cas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4*(4), 481-497.
- Kafka, M. P., & Prentky, R. A. (1998).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males with paraphilias and paraphilia-related disorders: A comorbidity study.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9*(7), 1601.
- Kafka, M. P. (2010). Hypersexual disorder: A proposed diagnosis for DSM-V.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 377-400.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21*-140.
- Kohut, T., Balzarini, R. N., Fisher, W. A., Grubbs, J. B., Campbell, L., & Prause, N. (2020). Surveying pornography use: A shaky science resting on poor measurement foundation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7*(6), 722-742.
- Kontula, O., & Haavio-Mannila, E. (2009). The impact of aging on human sexual activity and sexual desire. *Journal of Sex Research, 46*(1), 46-56.
- Kor, A., Zilcha-Mano, S., Fogel, Y. A., Mikulincer, M., Reid, R. C., & Potenza, M. N. (2014). Psychometric development of the problematic pornography use scale. *Addictive Behaviors, 39*(5), 861-868.
- Laier, C., Pekal, J., & Brand, M. (2015). Sexual excitability and dysfunctional coping determine cybersex addiction in homosexual mal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8*(10), 575-580.
- Lever, N. P. (2007). A comparison of Christian and non-Christian males, authoritarianism, and their relationship to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compulsio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4*(2), 145-166.
- Lewczuk, K., Wójcik, A., & Gola, M. (2019).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online pornography use: Objective data analysis from the period between 2004 and 2016 in Polan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51*, 1157-1171.
- Mahalik, J. R. (2000). Gender role conflict in men as a predictor of self-ratings of behavior on the interpersonal circl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2), 276-292.
- McKee, A. (2005). The objectification of women in mainstream pornographic videos in Australia. *Journal of Sex Research, 42*(4), 277-290.
- Mick, T. M., & Hollander, E. (2006). Impulsive-compulsive sexual behavior. *CNS Spectrums, 11*(12), 944-955.
- Miner, M. H., Romine, R. S., Raymond, N., Janssen, E., MacDonald III, A., & Coleman, E. (2016). Understanding the personality and

- behavioral mechanisms defining hypersexuality in men who have sex with men.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13(9), 1323-1331.
- Noor, S. W., Rosser, B. S., & Erickson, D. J. (2014). A brief scale to measure problematic sexually explicit media consumpti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ompulsive Pornography Consumption (CPC) scale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21(3), 240-261.
- Paredes, B., Martínez, L., Cuesta, U., Briñol, P., Petty, R., & Moreno, L. (2021). The role of meta-cognitive certainty on pornography consumption. *Psicothema*, 33(3), 442-448.
- Parent, M. C., Moradi, B., Rummell, C. M., & Tokar, D. M. (2011). Evidence of construct distinctiveness for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2(4), 354-367.
- Park, B. Y., Wilson, G., Berger, J., Christman, M., Reina, B., Bishop, F., & Doan, A. P. (2016). Is internet pornography causing sexual dysfunctions? A review with clinical reports. *Behavioral Sciences*, 6(3), 17.
<https://doi.org/10.3390/bs6030017>
- Parsons, J. T., Starks, T. J., Gamarel, K. E., & Grov, C. (2012). Non-monogamy and sexual relationship quality among same-sex male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5), 669.
- Pennebaker, J. W., & Beall, S. K. (1986). Confronting a traumatic event: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hibition and disea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3), 274.
- Perrin, P. C., Madanat, H. N., Barnes, M. D., Carolan, A., Clark, R. B., Ivins, N., & Williams, P. N. (2008). Health education's role in framing pornography as a public health issue: Local and national strategies with international implications. *Promotion & Education*, 15(1), 11-18.
- Peter, J., & Valkenburg, P. M. (2011). The use of sexually explicit internet material and its antecedents: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adolescents and adul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0, 1015-1025.
- Preacher, K. J., Zhang, G., Kim, C., & Mels, G. (2013). Choosing the optimal number of factor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model selection perspective.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8(1), 28-56.
- Putnam, D. E. (2000). Initiation and maintenance of online sexual compulsivity: Implications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CyberPsychology & Behavior*, 3(4), 553-563.
- Reid, R. C., Garos, S., & Carpenter, B. N. (2011). Reliability, validity, and psychometric development of the Hypersexual Behavior Inventory in an outpatient sample of me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8(1), 30-51.
- Reid, R. C., Carpenter, B. N., Hook, J. N., Garos, S., Manning, J. C., Gilliland, R. & Fong, T. (2012). Report of findings in a DSM-5 field trial for hypersexual disorder.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9(11), 2868-2877.
- Rizor, A., Callands, T., Desrosiers, A., & Kershaw, T. (2017). (S) He's gotta have it: Emotion regulation, emotional expression, and sexual risk behavior in emerging adult couples.

-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24(3), 203-216.
- Rofes, E. (1995). *AIDS Education under Democracy: Gay Men, Sexual Dissent, and the Limits of Prevention*. San Francisco.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 Schneider, J. P. (1994). Sex addiction: Controversy within mainstream addiction medicine, diagnosis based on the DSM-III-R, and physician case historie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The Journal of Treatment and Prevention*, 1(1), 19-44.
- Shapira, N. A., Lessig, M. C., Goldsmith, T. D., Szabo, S. T., Lazoritz, M., Gold, M. S., & Stein, D. J. (2003). Problematic Internet use: Proposed classification and diagnostic criteria. *Depression and Anxiety*, 17(4), 207-216.
- Simon, L., & Daneback, K. (2013). Adolescents' use of the internet for sex education: A thematic and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Sexual Health*, 25(4), 305-319.
- Træen, B., Nilsen, T. S. R., & Stigum, H. (2006). Use of pornography in traditional media and on the Internet in Norway. *Journal of Sex Research*, 43(3), 245-254.
- Twohig, M. P., & Crosby, J. M. (2010).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s a treatment for problematic Internet pornography viewing. *Behavior Therapy*, 41(3), 285-295.
- Wetterneck, C. T., Burgess, A. J., Short, M. B., Smith, A. H., & Cervantes, M. E. (2012). The role of sexual compulsivity, impulsiv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in Internet pornography use. *The Psychological Record*, 62, 3-18.
- Weaver III, J. B., Weaver, S. S., Mays, D., Hopkins, G. L., Kannenberg, W., & McBride, D. (2011). Mental-and physical-health indicators and sexually explicit media use behavior by adults.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8(3), 764-772.
- Wilcox, B. L. (1987). Pornography, social science, and politics: When research and ideology collide. *American Psychologist*, 42(10), 941-943.
- Willis, M., Bridges, A. J., & Sun, C. (2022). Pornography use, gender, and sexual objectification: A multinational study. *Sexuality & Culture*, 26(4), 1298-1313.
- Wood, H. (2011). The Internet and its role in the escalation of sexually compulsive behaviour.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25(2), 127-142.
- Wright, P. J., & Randall, A. K. (2012). Internet pornography exposure and risky sexual behavior among adult males in the United Sta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4), 1410-1416.
- Yang, X. Y. (2016). Is social status related to Internet pornography use? Evidence from the early 2000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5, 997-1009.
- Yoder, V. C., VIRDEN III, T. B., & Amin, K. (2005). Internet pornography and loneliness: An associatio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2(1), 19-44.

원 고 접 수 일 : 2023. 11. 02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1. 22
게 재 결 정 일 : 2024. 02. 05

Validation of Korean Problematic Pornography Use Scale

Sungbum Woo

Hanyang Cyber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Problematic Pornography Use Scale. We adapted the scale developed by Kor and his colleagues (2014), and conducted expert content validation. A sample of 241 participants underwen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hich yielded three factors: 'Excessive Use and Difficulty in Control,' 'Adaptation and Functional Impairment,' and 'Emotion Avoidance.' Subsequentl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al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a separate cohort of 299 participants, affirming the three-factor structure and establishing the scale's construct validity, as well as it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The scale's validity was further assessed through its correlations with excessive sexual behaviors, self-esteem, sexual objectification perpetr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inally, we provided suggestions and highlighted area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Problematic pornography use, sexual behavior, masculinity, scale validation